



「2022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시험대비」

정혜영 전문상담 모의고사 및 해설(2)

| 정혜영 교수 | 박문각임용고시학원

04. (가)는 중학교 미술동아리를 지도하는 이교사가 쓴 동아리 운영보고서의 일부이고, (나)는 이교사가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대화 내용이다.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시오.[2점]

< 가 >

그림을 좋아하지만 배워본 적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동아리를 시작하였다. 학기말에 미술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A그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잘 해 온 학생들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문화상품권을 선물하였다. 미술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단지 미술동아리 활동에 매주 참여하는 학생들인 B그룹엔 과제를 내주지 않고, 원하는 만큼 활동시간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으나, 그림을 그린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보상을 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점점 A그룹 학생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그만 그리고 싶어하게 됐고, B그룹 학생들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며 그림 실력도 A그룹 학생들보다 점차 나아졌다.

< 나 >

이교사: 선생님, 이번 미술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무척 속이 상했어요. 미술대회에 나가고자 한 학생들의 그림 그리는 동기가 감소하게 되어서 제가 잘못 운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김교사: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다만, 선생님께서 레퍼와 그린(Lepper & Greene)의 (㉠) 이론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는 내재적 동기로 시작된 행동에 외적 보상이나 제약이 제시되면 그 행동의 요인을 외적 보상이나 제약, 위협 같은 외적 요인으로 귀인하게 된다는 이론이에요. 이로 인해 자발적 동기와 흥미가 감소하게 되죠.

[성격 심리학] [2점/중]
[출제의도] 성격심리학의 동기이론 영역에서 내재적 동기에 관한 기초적이면서 많이 알려진 과정당화 이론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범 답안] 과정당화
[해 설]
레퍼와 그린(Lepper & Greene)은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이 보상이나 다른 외적 제약과 연결되면 사람들은 그 행동이 내재동기와 같은 내적 요인보다는 위협이나 뇌물과 같은 외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과정당화 이론이라고 한다.

[채점 기준] 2점

05. 다음은 전문상담교사들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전문상담교사 2명을 찾아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4점]

김교사: 저는 2개월 전부터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학생을 상담하게 되었어요. 그 학생을 잘 상담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수련감독자에게 그 학생의 사례로 슈퍼비전을 받았어요. 슈퍼바이저에게 그 학생의 사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했기에 나이와 사는 지역,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 등을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덕분에 사례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최근에 제 능력에 한계를 느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이교사: 저는 학교폭력 문제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받도록 징계 조치 받은 학생을 상담하게 되었어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상담 진행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았고, 본인에게도 사전동의를 받아 상담을 진행했어요.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상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학생이 자신이 상담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지를 묻더군요. 미성년자라서 자율성에 제한이 있으며,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어요.
나교사: 제 내담자 중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상담에서 자기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알고 보니 학생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를 몇 번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내담자에게 그냥 부모님의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 것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그 식당에 갔는데 내담자와 마주쳤지 뭐예요. 내담자가 당황하길래 달래주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어요.
임교사: 저는 최근에 중학생인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찾아와 학생과 나는 상담내용을 알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물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차 부탁을 하시길래, 먼저 당사자인 내담자에게 부모님이 정보를 알기를 원한다고 알렸어요. 그러자 학생이 부모에게 알려줘도 괜찮다고 말을 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부모에게 알렸어요.

[상담이론과 실제] [4점/하]
[출제의도] 상담이론과 실제 영역에서 상담 윤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범 답안] 잘못된 행동을 한 전문상담교사는 김교사이다. 김교사는 수련감독을 받을 때 내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을 한 전문상담교사는 나교사이다. 상담교사는 내담자와 다중관계를 맺으면 안되므로 내담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다녀서는 안된다
[해 설]
비밀보장 예외조항에 의하면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와 교육을 위해 또는 내담자에게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내용을 공개사례 발표회에서 발표하거나 수련감독자에게 공개

하거나 상담 사례를 책에 인용할 수 있다. 단 이런 경우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드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다중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즉 상담자 내담자 관계 이외에 추가적으로 내담자와 다른 관계를 맺어서 안 되는 것으로 이는 비전문적인 관계로 인하여 상담자의 판단에 지장을 주거나 상담 효과를 훼손시키거나 내담자 복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중관계는 내담자로부터 신뢰감을 잃을 위험을 일으키며, 내담자에게 정서적 혼란감을 일으키는 위험을 일으키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권력행사를 할 수도 있는 위험을 일으킨다.

[채점 기준] 2점

06. (가)와 (나)는 전문상담교사인 김교사가 수정아(고2, 여)를 상담한 축어록 내용이다. 펄스(F. Perls)의 게슈탈트 심리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4점]

< 가 >

김교사: 수정아, 네가 지난 시간에 엄마가 바라는 착한 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 오늘은 어떤 마음이 드니?
수 정: 네. 저는 엄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맞춰서 해주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공부를 잘 하는 모범생이길 원하면, 모범생으로 살아왔고, 엄마가 순종하는 착한 딸을 원하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주었던 것 같아요.
김교사: 그랬구나.
수 정: 그런데 선생님과 상담을 해으면서, 저는 엄마가 원하는 딸로 살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엄마가 원하는 모범생으로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게 살아간다면, 과연 제가 혼자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견뎌내는 것도 자신 없고, 그렇다고 엄마가 원하는 모범생의 딸로 사는 것도 싫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두려워요.

< 나 >

수 정: 엄마에게 너무 화가 나요! 그동안 저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강요했던 것에 대해서! 아, 너무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교사: 그래, 수정아. 지금 너의 엄마가 맞든 편 빈의자에 실제 계산다고 가정하면. 그리고 네가 말하기 힘든 많은 것들을 듣고 계시. 그 말들을 엄마에게 직접 말씀드려 보자. 네가 어머니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말아야. 한 번 해보겠니?

www.gosiplan < 조건 >
○ 펄스(F. Perls)의 게슈탈트 이론의 성격변화 단계 이론을 바탕으로 (가)의 수정아에 해당하는 단계가 무엇인지 쓰고, 해당 단계의 특징 1가지를 서술하시오.
○ 펄스(F. Perls)의 게슈탈트 심리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나)에서 김교사가 적용하고 있는 빈의자 기법의 치료적 효과 2가지를 서술하시오.

[상담이론과 실제] [4점/중]
[출제의도] 상담이론과 실제 영역에서 펄스의 게슈탈트 심리학의 치료적 개념과정과 기법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범 답안] (가)의 단계는 교착층(난국층, 막다른 골목)이다. 특징은 역할연기를 그만두고 자립을 시도하려 하지만 심한 공포를 체험한다.(실존적 딜레마에 빠져 공포감을 체험한다) (나)의 빈의자 기법의 치료적 효과는 문제의 대상과 현재에서 직접 대화가 가능하게 해준다. 자신의 감정을 명료화시켜 준다.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게 해준다. 감정과 가치관의 자각을 통해 통합된 자아를 형성하게 해준다.(4가지 중 2가지 쓰면 맞게 채점)
[해 설]
교착층(난국층, 막다른 골목)은 이제껏 해왔던 역할연기를 그만두고 자립 시도와 동시에 심한 공포를 체험한다. 즉 환경으로부터 도움 받기 위해 해온 역할연기는 포기했지만, 아직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실존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심한 허탈감과 공포감을 체험하게 된다.
빈의자 기법은 치료 장면이 없는 사람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담자로 하여금 그 인물이 맞든 편 빈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고 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흔히 현재 치료 장면에 와있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다룰 때 사용한다. 치료적 효과는 직접대화를 함으로써 그 자체로 효과적이고, 상담자의 경우 문제 상황과 함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내담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이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또한 과거사건이나 미래 사건을 현재사건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또한 내담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명료화할 수 있고,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빈의자와의 대화는 외부로 투사된 자신의 욕구나 감정, 가치관을 자각하게 해주며, 또한 내사된 가치관이나 도덕률을 의식화하고 이들과의 직면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아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채점 기준] 2점